

코스피	코스닥
2770.69 (+32.50)	803.15 (-0.63)
금리 (한국예 9년)	환율 (원·달러)
3.004 (+0.010)	1375.25 (-10.05)



반도체 자존심 회복 영업익 10조 넘었다

삼성전자 2분기 ‘깜짝실적’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10조원대 영업이익은 7분기만이다. AI 수요의 강세로 반도체 사업에서 6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31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4조683억원, 10조443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23.44%, 1462.29% 증가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전망한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73조7160억원, 영업이익은 8조2288억원이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IT 시황이 회복되는 가운데 메모리 분야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대폭 상승했다”며 “모바일(MX)부문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이 다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매출 74조, 영업익 10.4조 집계
AI 혼풍에 DS 영업익만 6조 넘어
시스템LSI 상반기 매출 ‘신기록’
DX부문 매출 42조, 영업익 2.7조

◆반도체 영업익만 6조 “전체 영업익 61% 차지”

이번 호실적은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부문의 실적을 크게 개선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사업을 맡는 DS부문은 2분기 매출 28조5600억원, 영업이익 6조45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DS부문 비중은 61.8%에 달한다.

메모리는 생성형 AI 서버용 제품의 수요 강세에 힘입어 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는 동시에 기업용 자체 서버 시장의 수요도 증가하며 DDR5와 고용량 SSD제품의 수요가 확대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DDR5 ▲서버SSD ▲HBM 등 서버 응용 중심의 제품 판매 확대와 생성형 AI 서버용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해 실적이 전분기 대비 대폭 호전됐다.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올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 74조683억원, 영업이익 10조4439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뉴시스

또 업계 최초로 개발한 1b나노 32Gb DDR5 기반의 128GB 제품 양산 판매를 개시해 DDR5 시장 리더십을 강화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 신제품용 SoC(System on Chip)·이미지센서·DDI(Display Driver IC) 제품 공급 증가로 실적이 개선돼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파운드리링는 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5나노 이하 선단 공정 수주 확대로 전년 대비 AI와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 고객수가 약 2배로 증가했다.

또 GAA 2나노 공정 프로세스 설계 키트 개발·배포를 통해 고객사들이 본격적으로 제품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5년 2나노 양산을 위한 준비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DX 영업익 2조 “스마트폰 사업 감소·가전은 상승”

모바일과 생활가전 등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X)부문은 매출 42조700억원, 영업이익 2조7200억원을 달성했다.

이 중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MX부문은 2분기 매출 27조3800억원, 영업이익 2조23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시장 비수기가 지속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모델이 출시된 1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갤럭시 S24 시리즈는 2분기와 상반기 출하량·매출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

<3면에 계속>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10억로또’ 원펜타스, 현금부자 13만명 몰려

서울·수도권 중심 청약 광풍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줍줍’에
300만명 접수… ‘역대 최다’ 기록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청약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300만명이 몰리며 청약 시스템이 마비되는가 하면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어도 일단 10억원 안팎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 강남 아파트에도 13만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전용면적 84㎡ 1세

대에 대해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 4780명이 접수했다.

청약 신청자로 보면 역대 최다 기록이다. 앞서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01만 3456명이 신청한 바 있다. 무순위 청약 1가구를 대상으로는 동작구 ‘흑석자이’에 82만9804명이 접수한 게 최다였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 위해 수백만명이 일시에 몰리며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도 빚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을 운영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동탄역 롯데캐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당초 29일 하루 접수에서 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동탄역 롯데캐슬이 수백만명의 관심을 끈 것은 지난 2017년 당시 분양가로 청약이 진행되면서다. 전용 84㎡의 44층 1세대의 분양가가 4억8200만원이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평형이 올해 6월 1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시세차익만 10억원 안팎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한 조건이 없는 것도 한몫을 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지역도 전국으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2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 일반분양 역시 청약 경쟁률이 크게 치솟았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센강에 뛰어드는 트라이애슬론 선수들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센강에서 2024 파리올림픽 철인 3종(트라이애슬론) 여자부 개인전 경기가 열려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수질 문제로 연기됐던 트라이

애슬론 경기가 이날 여자부에 이어 남자부도 열린다.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1.5km, 사이클 40km, 러닝 10km 순서로 치르는 경기로 올림픽에서 가장 힘들다는 종목이다.

AP/뉴시스

‘IPO 단계별 수수료’ 시행… 실효성은 글썽

증권사-예비상장기업 관계 우려
상장 심사 재청구 협력 가능성도

8월 1일부터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주관증권사는 상장(계약해지)에도 그간 해운 업무에 대한 단계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업계는 이런 지침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업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 등이 내놓은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안에 따른 조치로, 바뀐 인수업무 규정에 따라 증권사들은

1일부터 내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눈여겨본 내용은 상장하고자 하는 예비상장기업(발행사)의 IPO가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 주관사가 수수료를 단계별로 받도록 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주관증권사는 예비상장기업이 IPO에 성공해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즉, 주관사들은 기업 실사나 분석을 하는데 공을 들였어도 해당 예비상장기업이 IPO에 실패하면 그간의 수수료는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후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주관사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개정이라는 시각과 현업에

서 중간 수수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파두 뺑뺑기 상장’ 논란을 금융당국이 ‘무리한 상장 시도’로 해석하면서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IPO를 준비하는 증권사들은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예비상장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주관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실제로 IPO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 김문수 “노란봉투법, 세계 입법 사례 없어”
/사진 뉴시스
▲ “검사탄핵 청문회” 내달 14일 실시…여 “근거 부족” 야 “조사하면 알 것”

▲ “전국민 25만원” 겨냥?…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증증”
▲ 한동훈, ‘일본도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 요건 강화해야



▲ 박찬대, 이진숙 임명에 “국민 우롱… 윤 방송장악 독재 망상 접어야” /사진 뉴시스
▲ “수사 받은 피의자가 명예전역이라니”… 임성근 전역 반대 서명운동